

국 제

“韓 방위산업, 글로벌 파워로 부상”

디펜스뉴스,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KAI 79위, 로템 93위 선정

과거 미국 무기의 부활생산이나 위탁생산으로 알려져 온 한국의 방위산업이 자체 기술로 세계 정상급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디펜스뉴스'가 16일 보도했다.

디펜스뉴스는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 KT-1 훈련기와 XK-2 탱크의 수출액이 5억4천만달러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01년 한국이 터키에 수출했던 K-9 자주포 수출액 10억달러에 이어 두번째 규모라고 밝혔다.

의 각종 군함 및 잠수함, 크루즈 미사일인 해상과 휴대용 미사일인 신궁 등도 주목할 방산제품으로 꼽았다.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한국기업 2개 선정>=디펜스뉴스는 매출을 기준으로 세계 100대 방산업체를 선정 발표하면서 361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록히드 마틴이 보잉(292억달러)을 따돌리고 작년 이어 세계 최대 방산업체에 올랐다고 밝혔다.

“임신중 독감 걸리면 아기 정신분열증 가능성 7배 높아져”

임마가 임신 중에 독감에 걸리면 아기가 태어나서 정신분열증에 걸릴 가능성이 7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연구팀은 1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 신경과학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독감 바이러스가 태아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 확인으로 북핵 불능화와 대북제재 완화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6시회담 수석대표들이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크리스토퍼 힐 미 동아태 차관보,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 /메이징=연합뉴스

“핵 신고·불능화” VS “적대정책 폐기”

북-미 2차 양자회담 의견 조율 재개

4개월만에 재개되는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의 백미로 평가되는 북-미 양자회담이 17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 열렸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베이징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북-미 회동을 가졌다. <25일만의 만남>=무엇을 논의했나=> 두 사람은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연내 핵시설 불능화, 그리고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 조치가 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 문제를 집중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지정 해제 및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의 세부 현안이다. 아울러 핵프로그램 목록 신고의 최대 쟁점인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도 당연히 중요 협의 안건으로 다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쟁점>=두 사람의 협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현안은 역시 HEU 문제와 불능화의 개념을 '합치'시키는 문제이다. 최근 들어 농축우라늄프로그램 문제로 많이 불리기도 하는 HEU 문제와 관련, 북한과 미국이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힌데다 영변 핵시설 폐쇄가 단행된 시점이어서 두 사람은 이 문제와 관련해 보다 깊은 얘기를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인하면서 “증거를 제시하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원심분리기 등의 구입 경위 및 사용처에 대해 설명하고 핵무기 제조 목적이 아닌 단순 연구용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처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HEU 문제는 순항할 수 있지만 종전처럼 부인 취지로 일관하면 2단계 협의는 초반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양측은 이와 함께 불능화의 수준을 두고 ‘일괄’을 겨뤘을 가능성이 높다. 힐 차관보는 ‘중유 95만리터에 대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얻기 위해서는 돌리길 수 없는 불능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에서 북한이 큰 액자를 갖는 것으로 문제로 군사회담 개최 문제 등이 거론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두 사람의 협의 내용은 이번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와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메이징=연합뉴스

힐 “평화협정 대체협상 내년에”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안태평양담당 차관보는 16일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협상이 내년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서울에서 AP

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협정 대체 협상을 종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체 아래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18~19일 열리는 6자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어떻게 진전시킬지 논의하는 자리 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핵시설이 쉽게 제거될 수 없도록 연말까지 불능화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AP=연합뉴스

여진 80여회...원전 방사능 누출

일본 니가타현 강진 9명 사망·1천여명 부상 목조건물에 피해 집중...교토서도 6·6 강진

일본 니가타현을 강타한 지진으로 17일 오전까지 9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인근 도쿄전력 가시와사키 가리와발전소에서 설계 당시 상정했던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강한 진동이 관측돼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냉각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등 문제가 속출했다. 오미유리신문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냉각수의 유출량은 1.2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도쿄전력측은 유출된 냉각수는 기준치 이하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16일 밤 11시 18분께 교토부에서 진도 6.6의 강진이 발생했으나 17일 오전까지 특별한 피해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은 교토 앞바다 해저 370km였으며 쓰나미 주의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이밖에 도호카이도 지역에서도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는 등 16일 오전 니가타현 일대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17일 오전까지 80차례 가까이 여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과 관련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최대 피해지역인 가시와사키에 목조 주택이 밀려있는데다 이번 지진으로 목조 주택에 피해를



주기 쉬운 특성을 가진 지진파를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기름 유출 해변의 일광욕 남녀 스페인 발레아레스 군도 이비사섬 해변에서 16일(현지 시각) 기름 제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관광객들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지난 15일 이비사 항구에서는 선박이 침몰해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로미터=연합뉴스

간선도로변에 살면 동맥경화 위험 높다

고속도로와 같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가까이 사는 사람일수록 동맥경화 위험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독일 뒤스부르크-에센 대학병원의 바르바라 호프만 박사는 미국심장학회 학술지 '순환' 최신호에 실린 연구논문에서 사는 곳이 자동차 왕래가 많은 간선도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냐에 따라 동맥경화 발생 위험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호프만 박사는 독일의 루르공단지역 내 3개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 4천494명을 대상으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석회화를 컴퓨터단층촬영으로 측정하고 결과 사는 곳이 간선도로에 가까울수록 CAC수치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상동맥 석회화란 관상동맥의 혈관벽에 지방(脂肪)이 침착돼 석회처럼 굳어지는 현상으로 동맥경화 진단의 기준이 된다. /뉴로미터=연합뉴스

美 법원 '바지 소송' 판결 재고 요청도 기각

한인 세탁업자를 상대로 5천4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판결을 재고해달라는 로이 피어슨 전 행정 관사의 요청이 16일 기각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지방 법원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는 이날 “피어슨 전 관사는 업주가 소비자 보호법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예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며 판결 재고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책관리사·공인중개사
모집과정: 공인중개사 12차월~5월, 시험일: 10월28일
주책관리사 12차월~5월, 시험일: 10월21일
주책관리사 2차회계포럼 주책관리(토)월, 시험일: 10월21일
모집대상: 휴학도중 또는 휴학 후 1월 이내에 재학할 예정인 분
시험: 근무지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40세 이상 이신 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 이신 분, 분사(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기타사항: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신학수 정원제 모집
수수료: 100~80% 환급
접수: 수강일자: 휴학상담→휴학수강신청서 작성→휴학기간에 재출→수강
일수: 19:00~21:00(기초) / 화요일 19:00~21:00(기초1)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강습서원 224-4560, 232-1088

특보:세무공무원 3000명 모집, 합격의 절호의 기회!!
7.9 급 공무원 대특강
일 새무직 2700명 공채 2차 내년 초 1400명(대모집)
7.9 급 일반 행정직 216명 10월 13일 시험 개강 8월 1일
9급 교육 행정직 000명 올해반기 시험 주야반모집
무등고시학원
www.mdgoal.co.kr
222-4560

www.kimyong.com
그동안 정영출신 12만여명 합격
앞선 시작, 앞서가는 힘! 상위권 대학도 역시!
김영선생 대학편입 여름방학 편입 대특강
개강 8월 1일
올해도 역시! 거침없는 합격률!!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강습서원) 227-8088

KT 파워텔의 안전하고 신속·정확한 최첨단 콜시스템
“CALL” 하면 달려갑니다.
무선기에 휴대폰, GPS기능까지... 차세대 비즈니스 이동통신
KT파워텔~
KT파워텔 최첨단 콜시스템 이용전화번호
KT파워텔 광주지점 062-526-0130
광주콜택시 062-525-2525 우리콜택시 062-529-7777 햇별콜택시 062-364-0782
드림콜택시 062-227-0082 운불런부름택시 062-515-1108 화순개인택시 061-374-0707
무등산개인부름택시 062-513-8888 중앙콜택시 062-266-9933 화순만연택시 061-371-8555
신흥콜부름택시 062-515-9999 하이콜부름택시 062-525-7777 화순합회택시 061-375-5112
우등콜택시 062-515-8282 무지개콜택시 062-959-8008